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10장, 출애굽기, 옛 것과 새 것, 에스겔 20:1-44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3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 에스겔 20:1-44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20장을 살펴보면서 에스겔서의 새로운 주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20장부터 24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부분을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9장까지와 같이 그들과 함께 가는 포괄적인 구조, 즉 구조적 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낱자, 비전, 상징적 행동, 메시지. 여기에 구조화의 일부가 있습니다.

20장과 1절에 새로운 낱자가 있고 또 다른 환상은 없지만 8장의 두 번째 부분 시작 부분에서 본 것처럼 장로들의 방문만 있습니다. 책. 그런 다음 24장이 끝날 때까지 일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은 21장부터 24장까지의 상징적 동작에 대한 참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따르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낱자는 우리 연대기에서 기원전 591년 8월로 계산되며, 1장에서는 593년 7월이었고, 8장에서는 592년 9월이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습니다. 바빌론으로 온 예루살렘 엘리트 시민들의 추방 597년은 이제 6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우리는 장로들이 다시 한 번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8장에서 말했듯이 노동 수용소에는 자치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장로들이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게 와서 그의 예언적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들은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그와 상의하러 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3절부터 31절까지에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보기 전에 32장에서 44장까지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으로의 복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이전에 알아차린 것처럼, 이 후자의 메시지는 에스겔이 그의 첫 번째 메시지인 출애굽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충한 두 번째 판 추가, 즉 두 번째 판 추가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것을 새로운 메시지로 보완하고, 이제 그것은 첫 번째 메시지의 부정적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다음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1절의 날짜는 첫 번째 메시지와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 메시지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고 싶다면 분명히 587년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출애굽에 관한 새로운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결합하는 것은 매우 주제적인 결합입니다. 14장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들도 이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유로 호의적인 상담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14.3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14장 6절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스겔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장로들을 이교 관습에 대해 비난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호의적인 메시지는 배제되었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의 끝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미혹되려느냐 너희가 예물을 드리며 너희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너희 모든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느니라.

오 이스라엘 집이여, 내가 너희에게 의논을 받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너희와 의논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아니요,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왜 원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없는지 설명하지 않는 긴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의

대주제인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전체에 걸쳐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전체에 대한 영적인 기초가 됩니다. 에스겔도 출애굽에 관한 역사 교훈을 주지만, 이 장로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역사 교훈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출애굽은 구약성서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 특징적으로 정의됩니다.

신약성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신약성서의 예수님의 부활처럼, 구약성서의 이집트 탈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매년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축제로 기념했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초기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모든 유대인은 자신이 출애굽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신을 투영하고 이 출애굽 사건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매년 유월절에 모든 이스라엘인은 출애굽을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시작이자 기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홍해를 건넌 후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후로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좋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실 복잡한 사건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집트 탈출로 시작하여 광야를 여행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땅으로 인도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종종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올라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동사는 끝, 시작과 끝, 이집트와 약속의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단지가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지점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특히 양육에 관한 언어는 출애굽 전통의 세 가지 요소를 훌륭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에 대해서만 말하면, 거기에서 전체 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추방자들이 잃어버린 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은 출애굽을 기반으로 그 땅에 사는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에스겔이 여기에서 그들의 통치 장로 대표자들을 통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출애굽기의 전통을 재검토한 결과 그러한 희망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장로들이 받은 것은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전반부에서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의 또 하나의 위대한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의 역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거기서 말했습니다. 유배자들이 그러한 믿음과 희망을 버린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전통을 그의 현미경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스라엘 측에 뿌리깊은 믿음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소위 놀라운 사건의 복합체를 해체하고 장로의 위로를 위해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유배되는 것에 대한 모든 정당성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장로들이 대표하는 예루살렘 엘리트의 추방보다 더 나쁜 철저한 유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출애굽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뒤집습니다. 1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믿음과 소망의 불변의 기초인 예루살렘의 가치를 뒤집었습니다.

에스겔 20장을 제외하고 출애굽기 주제의 가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장에 포함된 요소이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그가 계속하려고 했던 대로 그들과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 아홉 명, 일곱 명의 포로들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그 은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부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으므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모든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노래에 나오는 사랑과 결혼, 말과 마차처럼 땅과 사람은 신이 정한 은총으로 함께 갔다.

그래서 땅과 사람이 함께 갔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의 모든 에피소드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방자의 기대에 렌치를 던집니다. 그는 이야기의 각 에피소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단계씩 되짚어 본다. 청중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의가 매끄럽게 반영되는 것을 본 곳에서 에스겔은 또 다른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고의와 불순종에 대한 반복되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어두운 균열과 균열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의 위로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전통의 재구성을 5절부터 9절까지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머무는 사람들로 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억압받는 피해자, 그저 피해자일 뿐이라는 단순한 묘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어떤 내용도 이 단계에서 그들을 나쁜 시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면 여호수아의 연설 중 하나에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24장과 14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고 도전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흥미로운 점은 역사적 불성실의 목록에
이집트에 대한 언급과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불성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증거를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뒤돌아보면서
포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또 다른 전통을 받아들여 그것을 따랐습니다. 시편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교회 이후의 시편으로 구약성서의 여러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스겔보다 늦었습니다. 이 전통도 따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스겔
20장, 시편 106편, 7절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며, 에스겔은 여호수아가 말한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5절은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날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러한 선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의 매우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 헤매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영화로운 땅. 찾아내다(searched out)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전통에서 땅을 탐색하고 정찰하러 갔던 정탐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찾으시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전통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러나 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애굽이라 너희는 각기 눈으로 보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 곧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이 눈여겨보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며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거의 포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계속해서, 나는 그들에게 내 진노를 쏟으며, 애굽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진노를 그 때로 쏟아 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목전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집이 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다루셨고, 그 이유는 그들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려는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그의 이름이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패턴을 따르며, 이 광야 단계에는 이미 죄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오래된 광야 이야기에서 법을 제시하고 법을 어기는 전통적인 패턴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는 범법에 대한 언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야로 인도한 후에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내 율례를 주었고 내 율례를 그들에게 보이었나니 모든 사람이 이를 지키지니라 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새 언약의 표준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에스겔은 18장에서 그에게 매우 중요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생명의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장에 나오는 레위기 18장 5절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땅에서의 미래 삶에 대한 종말론적 언급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복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하나님의 알려진 뜻에 순종할 때 생명의 축복이 그들에게 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 명령을 생명을 약속하는 계명이라고 부르는데, 광야 세대는 다른 것을 선택했고 그 세대는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애굽을 떠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자기 우상을 좇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금송아지 사건, 즉 금송아지 숭배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 시점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광야 1세대는 그곳에서 죽지 않고 한동안 살아남아 광야에서 머물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죽음이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7년에 내 눈은 그들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광야 2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그들에게도 레위기 18장 5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출애굽 세대의 자손들이 나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삼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출애굽 전통에 대해 지금까지 하나님 편, 하나님의 최초의 은혜, 하나님의 최초의 선택, 그리고 그들을 아끼신 것 외에는 선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23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구약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만국 중에 흠으며 여러 나라에 흠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을 그 조상들의 우상에게로 향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2세의 생애에도 광야에서의 포로 생활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유배 유배를 선고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쎄,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글쎄요, 그것은 포로생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출애굽기의 한 구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불길한 것인데, 이것이 출애굽기 32장과 3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이스라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34장에서 징벌할 날이 이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징벌하리라. 에스겔은 열왕기를 통해 여호수아의 위대한 서사시를 생각하며 그 형벌을 사실상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땅을 영원히 즐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모호한 텍스트에 대한 특별한 해석입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궁극적인 형벌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106편은 에스겔의 인도를 따라 27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시편 106편과 27절은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멸시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을 광야에 엮드러뜨리고 그들의 후손을 여러 나라에 흠어 흠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시편 기자는 에스겔 20장을 읽고 출애굽기 32장 34절의 모호한 본문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사용합니다. 에스겔과 시편 기자는 출애굽기 32장의 문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을 쫓아갔고 597년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유다가 국가 국가가 아니게 된 587년에 유다를 따라잡았다고 이해했습니다.

인 18장은 세대를 초월하는 관점의 종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장기 계획 안에서 마침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20장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아직 587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 587 이전의 메시지는 그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며 결국 출애굽은 포로 생활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우리는 겪을수록 충격이 더욱 커집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지 않은 율법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이런, 그거 어디 있지? 그리고 25절에 그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레와 능히 살지 못할 규례를 주었느니라. 이 법은 레위기 18장 5절과 반대되는 것이었고, 복된 삶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26절은 약간의 빛을 발합니다.

그들이 장자를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니 이는 자녀 희생이 있었음이라. 분명히 매우 이교적인 방법으로 장자들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쳤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오경을 살펴보고 거기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음, 장자에 대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물의 장자들의 대속과 그들이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들은 죽을 운명이었다.

그러나 돈으로 대속해야 할 것은 장자들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장자들만 죽임을 당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결을 제시하는 출애굽기 13장과 5절에서 그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처음 태를 여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따로 드리라. 우리가 태를 처음 여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별하기 위해 다시 이 동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너희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다. 당나귀의 첫태생은 모두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르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 동물들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너희 자녀 중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는 대속해야 한다.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실제로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어떻게 살려 두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였으되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본문 자체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동일한 동사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다라는 동사는 31절의 자녀 희생이라는 문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예물을 바쳐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과시키는 것은 주님께 구별되는 것에 관한 옛 출애굽기 본문과 같습니다.

두 단계 모두에서 번역하거나, 다시 만들거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구속으로 그 아이를 주님께 넘겨드리게 됩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자녀를 제물로 바쳐 그 아이를 이교 신에게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자녀 희생을 행함으로써 여호와를 이교 신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어린이 희생 옹호자들은 그 동사의 이중 사용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아동 희생을 지지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뇨,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렇게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의 흥미로운 구절을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된 이교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내어 버려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그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질 잘못된 길을 택하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 법을 잘못 해석하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본문이 생각하고 싶어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말한 모든 것은 30절과 31절의 서문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이 거기에서 말하기를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으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교 관습을 받아들인 점에서 당신의 조상만큼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오래된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악한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구절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이 장황한 장광설로 출애굽기의 전통을 끌어내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잘못하고 스스로를 위한 심판을 쌓아 왔다는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587.

그런 다음 후반부인 32장부터 44장까지 갑니다. 주제는 출애굽이지만 지금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87 이후의 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제별로 보충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전 메시지의 출애굽 주제를 계속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판의 일부입니다. 587년의 비극적 심판은 31절과 32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주제는 계속되지만 이제는 상당한 양의 긍정적인 해석이 포함됩니다.

완전히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해석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출애굽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보고 있으며 에스겔은 옛 전통을 따라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유형이나 비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인들이 이집트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전히 부정적인 면이 있을 여지를 발견하고 있으며, 우리는 에스겔의 예언의 두 번째 시기에 속하는 메시지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희망과 도전의 확신과 경고를 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2절부터 4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32절은 실제로 절망 대신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게으른 예배자들 사이에 유배된 이교 환경에 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32절, 너희 마음에 하는 것이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방인과 그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 목석을 숭배하자. 하지만 여기서도 망명자의 태도에는 일종의 체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배되어 살고 있는 땅의 외국인 이웃처럼 예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다른 땅으로 이주하면 결국 동화됩니다. 그리고 독일인, 독일인의 자녀는 독일어를 잃고, 멕시코인의 아들은 스페인어를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종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게 가는 길, 자연스러운 길이다.

그래서 일종의 절망도 있지만 체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교도 이웃처럼 예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너희 왕이 되리라(33절). 내가 진실로 강한 손과 편 팔로 진노를 부어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바로 언어를 따왔습니다. 강인한 손, 뻗은 팔. 그리고 왕이 된다는 이 언급은, 출애굽기를 아신다면 출애굽기 13장에서 부른 노래도 아실 것입니다. 올바른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맞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리로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종류의 왕권이 있습니다.

그 전통의 이 부분은 왕권이었고, 여기서는 그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기 안에 옛 출애굽기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우상들, 너희가 섬기려고 생각하는 이방 신들의 형상보다 너희 위에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첫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고 결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기에도 비슷한 광야 장면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6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로 지팡이를 지나가게 하리라.

그리고 이 검문소, 보안 검색, 심사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반역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 조상들 중 몇몇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39절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부터는 너희 각자가 가서 너희 우상을 섬기라.

그리고 그것은 냉소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냉소적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우상을 숭배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야 할 일은 그 이교도 숭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명자들에게 자신들의 길을 고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이교 신앙을 버리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합당한 삶의 방식을 살아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18장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18과 20은 거의 같은 파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약속의 땅에서는 순결한 숭배가 있을 것입니다. 40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성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그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거기서 나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모든 신성한 것들을 위해 당신의 기여와 선물의 선택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분 좋은 향기로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40장부터 48장까지의 미니 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할 내용에 대해 여기 40절에 약간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고국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교도의 권리도 없이 귀환한 백성의 순수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20장에서 언급된 오래된 문제가 하나님이 나쁜 평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장에 나오는 여러 단계에서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명성을 위해 형벌을 보류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멸하면 나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음, 그건 별로 신이 아니었죠, 그렇죠? 참으로 약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것은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22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행하여 그것이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고 있는 신학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줄 잘못된 인상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축복을 받고 너희 예배에서 나를 올바로 인정할 때 내가 열방의 목전에서 너희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라들이 그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또 다른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2 절 인가요? 시편 126편, 백성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왔더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었도다 그 때에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방이 말하는 바를 따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노라 하느니라 그것이 최종적인 대답이 될 것이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옹호되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에게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깊이 가라앉았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그 나쁜 기억은 그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영원히 상기시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16장 61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기억은 다시 한 번 이교의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20장 45절부터 23장 끝으로 이동하여 2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3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 에스겔 20:1-44입니다.